

제27절 주인2리(周仁二里)[속명: 중리(中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매봉산(鷹峰山) 지맥(支脈)이 동쪽으로 뻗어있으며 버머곡(谷)과 앞들이 있고, 서쪽은 장재산(長在山) 아래에 정기장등(磴)과 원자력발전소의 저수지인 대수호(大藪湖)가 있다. 남쪽은 앞산(山) 매재바위 아래에 새들이 있고 부구천(富邱川)이 마을 앞으로 흐르며, 북쪽은 뒷산(山)인 각구산과 마을 뒷골인 대방곡(谷)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9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주인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폐교되었으며, 현재 교사는 울진예술인촌으로 조성되었다.

2. 마을의 역사

1456년경에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조선 단종 때 난(亂)을 피하여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터전을 마련하였고, 후손이 번성하면서 둔수정(遯修亭)이라는 정자도 지었다 한다. 그 후 200년 가까이 지낸 1625년경 겨울에 큰 화재로 온 마을이 소실되었고, 둔수정(遯修亭)과 유물(遺物)도 모두 소실(燒失)되었다. 이 화재 이후부터 이 마을을 불탄 마을(火燃村)이라 부르며 근세(近世)까지 전해왔다. 또 한때에는 이인리(移人里)라고도 불렀다 한다. 1680년경에 아랫마을인 석수동(石水洞)이 개척되고, 윗마을 대수동(大藪洞)이 개척되면서 이 마을이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중리(中里)라고 불렀다. 중리는 세 개의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을 동서로 나누는 대방골을 경계로 동쪽에는 담양 전씨 일족이, 서쪽에는 전주 이씨 일족이 세거하였다. 마을 앞 흥부천 건너 산등성이는 음달촌으로 부르며 과거에 서당이 있었다 하며 ‘문동곡(文童谷)’이라고 불렀다. 현 예술촌 뒤편에 옹기를 굽던 옹기가마가 있었다. 마을의 초입에 조계종 소속 성조암이 있다. 성조암은 당초 주인3리인 대수동에 있었으나 1979년 원자력발전소 공업용수 공급원인 대규모 댐이 건설되고 마을이 수몰되면서 현 위치로 이 건했다.

3. 가구 분포

총 45세대가 거주하며 전주 이씨(全州李氏)와 담양 전씨(潭陽田氏), 순흥 안씨(順興安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문동곡(文童谷)

마을 앞 내(川) 건너에 있는 음달촌(村)으로 산등(山嶺)에 위치하며, 주위에 대밭이 발달한 독가촌인데 옛날 아이들의 글방이 있었다 하여 이름 지어진 골(谷)이다.

2) 옹기점

1900년경에 김씨(金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옹기움을 짓고 70여 년간 옹기를 구워왔다 하여 옹기점이라 한다.

3) 응재봉(鷹在峰)

전설에 의하면 동해가 끓어 올라 해발 400m 높이의 산(山)이 물에 잠기고 산꼭대기에 매(鷹) 한 마리가 앉을 만큼 남았다 하여 응재봉(鷹在峰)이라 한다.

4) 이촌(李村)과 전촌(田村)

전주 이씨(全州李氏) 정착 후 담양 전씨(潭陽田氏)도 정착하였으며, 이 마을의 뒷계곡 물이 마을 가운데를 흘러 도랑이 형성되었는데, 도랑 위쪽[서쪽]에는 이씨(李氏)가 살고, 도랑 아래쪽[동쪽]에는 전씨(田氏)가 살게 되면서 이촌(李村), 전촌(田村)이라 불려왔으며, 현재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5. 새미산 전설

이 마을 뒤에 마을을 수호(守護)하는 새미산이라고 부르는 당목(堂木)이 있었는데 매년 3월 10일에 집집마다 한 차례씩 깨끗한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주부(主婦)가 당나무 신(神)에게 치성을 드려왔는데 현재에도 이 풍속을 지켜오는 가정이 있다.

제28절 주인3리(周仁三里)[속명 : 면전(綿田)]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응봉산(鷹峰山) 지맥(支脈) 아래에 대수호(大藪湖)[원자력발전소의 공업용수인